



GE 라이팅, 카페 전용 LED 조명 무상 교체 이벤트 실시

- “GE 그린 카페 캠페인”-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카페
- 선정된 커피 전문점에 LED 조명 무상 교체
- 할로겐의 고품격 분위기를 그대로, 전기세는 90% 절감

(2013년 11월 7일, 서울) GE 라이팅 코리아 (대표이사 김기정)는 국내 커피 전문점들의 기존 조명을 GE의 카페 전용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해주는 “GE 그린 카페 캠페인 (GE Green Café Campaign)”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GE 그린 카페 캠페인”은 GE의 글로벌 친환경 성장 전략인 에코메지네이션(ecomagination)의 일환으로, 커피 전문점의 친환경 조명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다. 즉, 친환경 LED 조명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 보호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또한, 카페의 품격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은 커피 전문점 뿐 아니라 F&B 프랜차이즈 전문 매장도 신청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카페 전문점은 오는 11월 22일 (금)까지 gelifightingkorea@ge.com로 신청서를 요청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요 선정 기준은 현재 LED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 중, 별도의 전기 공사를 하지 않고 GE LED 조명 제품과 1:1 교체가 가능한 매장을 우선 순위로 하며, 그린 카페 캠페인 참여 동기, 조명 교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GE 라이팅은 신청서를 받은 후 내부 심사를 거쳐, 신청 업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최종 선정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매장은 11월 29일 개별적으로 통지받게 된다.

선정된 매장에는 GE LED PAR30, MR16, A19, G110 등 GE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해 주고, 조명 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선정된 매장에는 GE 라이팅에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착한 카페’ 인증 마크를 수여할 예정이다.

현재 대다수의 카페 전문 매장은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구현을 위해 할로겐 조명을 사용한다. 그러나, 할로겐 램프는 LED 조명에 비해 제품 수명이 짧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GE의 LED 조명은 할로겐 램프의 우수한 연색성 및 빛의 질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할로겐 램프 대비 에너지 사용을 90% 절감한다. 또한, 램프 자체 발열량도 일반 할로겐 램프 대비 70% 이상 낮아 빛의 열로 인한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해 에너지 사용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다.

‘GE 그린 카페 캠페인’은 LED 조명 교체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되는 커피 전문점을 비롯 한 F&B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LED 조명을 무료로 교체해주는 기회이다.



GE라이팅은

GE라이팅은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이 설립한 GE의 모체이다. 에디슨이 세계 최초로 램프를 발명한 이후 130년 동안 다양한 조명제품 개발을 선도해왔다. GE라이팅은 백열램프, 형광램프, 할로겐램프, 고압 방전램프, LED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조명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종합 조명 기업이다.

GE라이팅은 크게 LED부문, 조명 부문, 조명기구 부문의 세 부문으로 나뉜다. LED 부문은 건축조명, 산업조명, 디스플레이 조명, 일반조명을 포함하며, 조명 부문은 형광램프, 할로겐램프, 방전램프, 자동차용 램프, 특수 램프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램프류와 점등보조장치인 안정기를 다룬다. 조명기구 부문은 건축용, 산업용, 스포츠용, 도로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GE라이팅의 모든 제품과 솔루션은 6시그마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 관리되고 있다.

본사는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하며, 2010년 기준 영업 매출은 약 45억 달러다. 전 세계 3개의 R&D 센터와 60개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8,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CEO는 메리로즈 실베스타 (Maryrose Sylvester)이다.

GE라이팅코리아는

GE라이팅코리아는 1988년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삼성과의 합작투자법인인GE 삼성조명(주)을 거쳐 2008년 12월에GE라이팅코리아로 자리매김하였다. GE라이팅코리아는 GE 라이팅의 60여 개의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생산되는 2만여 종의 조명제품을 한국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조명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한국시장은 물론 GE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문의

GE 라이팅 코리아

권재은 과장 (T: 02-6201-4337)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도윤 / 조현지 (T: 02-6323-5053, 5074 / HP: 010-5289-7806, 010-3766-0452, 010-9032-8077)